법인 중심 '우뚝' 세운 혜명복지원

법인사무국 독립건물 준공
종합복지타운 진용 갖춰

푸드뱅크 자체 공간 마련
노인요양원 건립 중점 추진
스리랑카복지타운도 10년
전체 사업규모 점차 확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월 2일 열린 혜명복지원 법인사무국 시설 준공식에서 이사장 도서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스님과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 절단을 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지역복지를 대표하는 혜명복지원이 법인사무국 건물을 준공하며 종합복지타운의 진용을 갖췄다. 혜명복지원은 이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 등 각종 복지사업 확대에 나선다.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이사장 도서, 도선사 주지)은 2월 2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부지서 법인사무국 시설 준공 및 금천구푸드뱅크마켓 이전식을 거행했다. 1976년 도선사가 자비사상과 중생구제 원력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고자 설립한 혜명복지원은 현재 법인 산하 19개 시설(직원 240명)을 운영하는 대형 복지법인으로 성장했지만 별도의 사무국 건물이 없어 복지관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해왔다.

이에 원활한 법인 업무와 사업 확대를 위해 지상 2층 규모(각층 80평) 건물을 새로 지어 사무국 공간을 배정했다. 특히 1층은 혜명복지원이 수탁 · 운영 중인 금천구푸드뱅크마켓 공간으로 활용, 건물을 임대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여타 푸드뱅크보다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준공식서 혜명복지원 이사장 도서 스님은 "혜명복지원 법인이 그동안 힘든 과정을 거쳐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만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사무국 시설을 준공한 혜명복지원은 앞으로 전문노인요양원 건립을 통한 노인복지사업 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인 산하에 혜명양로원과 청담노인복지센터, 청담데이케어센터가 있지만 전문적인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원이 없어 노인복지서비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다.

법인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불교계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선사 신도나 불자들이 불교계 요양원이 생기길 바란다. 이사장스님도 이 같은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요양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혜명복지원은 2008년 수탁한 스리랑카복지타운 10년을 맞아 스리랑카 농촌지역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구상 중이다. 스리랑카복지타운은 2004년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조계종이 건립했다. 매월 도선사에서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님과 직원, 불자들의 참여로 아동결연 100%를 달성하기도 했다. 스리랑카 현지서는 사마디고아원과 사마디유치원을 운영하며 학용품 및 생필품,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에는 前부산 미타선원장 각원 스님이 신임관장으로 임명돼 출국을 앞두고 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③

금번 연재에는 호스피스 봉사자 분의 기고를 싣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 곁을 함께 지키며 보살도를 행하는 감동을 독자분들에게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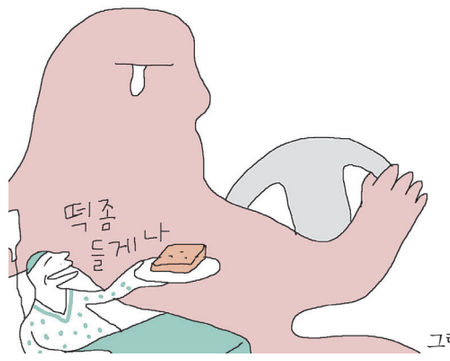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 분'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법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이 쏟아져서 껌도 먹고 노래도 들어 봅니다.

그래도 밤 고속도로 위는 뭔가 꿈길을 달리는 느낌입니다. 생각이 함께 일어나 달립니다. 그 분은 지금 편히 주무실까 합니다. 오늘 저녁엔 너무나 보고 싶은 그 분 소식에 하루 일이 끝나고 쉬고 있을 시간 이란 것도 은근슬쩍 보내버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 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색이 지난 번 기억보다 더 붉어져 있습니다. 이마위로 수액 주사 줄을 달고 있는 오른손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왼손 등에는 거즈가 붙어 있습니다. 주사를 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나 봅니다.

다가가서 가만히 왼손을 잡아 봅니다. 손바닥이 뜨끈뜨끈 합니다. 그 분이 드디어 눈을 뜨십니다.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저는 웃습니다.

"왔나."

그 소리가 심장을 가만히 칩니다. 참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곤 말문이 막힙니다.

이마 위 오른손 수액 줄에 피가 고입니다. 잠시 오른손을 내려드립니다. 이마에 자국이 났습니다. 더욱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마에 제 손등을 대어봅니다. 손바닥만큼 뜨끈뜨끈 합니다.

저는 껌을 씹으며 노래를 크게 들으며 밤 도로 위를 달려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23층 아파트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제 모습이 보입니다.

문득 제 눈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눈 속에 그분을 꼬옥 안았던 제가 있습니다. 고맙다 말씀하시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그 곳은 그 분이 아파서 계신 곳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분이 겪는 아픔의 먼지알갱이 만큼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분은 어쩐지 자꾸만 고맙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분이 그리워 자꾸만 뵈러 가게 됩니다. 아프신 그 분이 실은 제 아픔을 안아 주시니까요. 정말로 함께 아플 수 없는 저를 다 알아봐 주시니까요.

그 새 새로 한 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자야 합니다. 그 분이 약속하신 대로 열이 내리면 제게 전화를 주시겠지요. 정토마을 자재병원의 하늘엔 그 분의 별이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협회 봉사자 김경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육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 3월 29일(목)
- **접수마감** | 3월 19일(월) (선착순 30명)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포교사단, 포교회관 건립 추진한다

1월 29일 운영위 연수서 확정

조계종 포교사단이 포교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1월 28일과 2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차 운영위원 연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포교사단은 먼저 윤기중 사단장을 위원장으로 '2018포교회관 건립추진위원' 84명을 선임했다. 건립추진위 1차 회의와 2차 운영위원 연수는 4월 19일 열리며, 이날 건립 추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포교사단은 포교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포교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5회 포교사의 날을 개최하고 9월 8일과 9일 팔재계 수계실천 대법회도 연다. 또 1월 포교사단 본단에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의 지역단 시행을 4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월 3일 진행된 제23회 일반포교사 · 국제포교사 고시에는 일반포교사 505명, 국제포교사 28명 등 총 533명이 응시했다. 노덕현 기자

"장기기증 국민인식 개선 나서겠다"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 6일 신년 사업계획 발표해

'생명더하기…' 캠페인
기업 참여 기증 운동 전개
병원 · 복지관서 현장 상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신년계획을 밝히고 있다.

불교계 장기기증 기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나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2월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 · 인체조직기증과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기업 · 지역본부와 연계한 캠페인 진행 △후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장려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생명나눔은 먼저 201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500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3000명, 조직기증 희망등록자 2500명을 모집을 목표로 '생명더하기, 행복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생명더하기, 행복나누기' 캠페인은 학생 및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 및 기증희망등록을 이끄는 캠페인이다.

생명나눔은 2017년 도봉면허시험장과 부산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한 현장캠페인을 연중 캠페인으로 확대하며, 지역의 병원과 복지관 등에서 일대일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부산, 대구, 광주전남, 경남, 제주 지역본부와도 연계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 사찰 등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특히 기업에서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장기기증 희망등록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개 기업과 협약이 추진 중이다.

또 대학 간호학과와 장기기증 홍보 협약을 맺은데 이어 올해에는 전국 25개 대학 간호학과로 협약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생명나눔은 △희망걷기대회(4월 28일) △천도재(6월 6일) △한다솜 희망음악회(6월 8일) △논산훈련소 법회(9월 29일) △산사음악회(10월 6일) △따뜻한 정나누기(12월 5일)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희망등록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을 누구라도 부담없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장기기증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으로 더욱 많은 불자들이 보살행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